

# 강진군, 바지락 고장 옛 명성 되찾다

## 신전면 사초마을 주민 등 100여 명 공동작업으로 바지락 5톤 채취

지난 3월 31일 신전면 사초마을 바지락 양식장에서 어촌계 등 주민 100여 명이 모여 공동 채취 작업을 실시했다.

금번 채취한 바지락은 지난해 5월 군에서 강진만 패류를 살리기 위해 총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해 사초리 등 7개 어촌계에 뿌린 종패가 생육한 것이다. 바지락은 살포 후 고수온과 태풍에도 잘 견디 4cm 크기로 잘 자랐다.

강진산 바지락은 80~90년대에는 생산량이 많지는 않았으나,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아 서울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가장 빨리 경매가 이루어질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강진군은 2년 전부터 바지락 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 살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지락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 양식장 모래살포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6월 중 관내 10개

어촌계에 바지락과 모래를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장복 해양산림과장은 “바지락, 꼬막 등 패류살포사업이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패류가 잘 자랄 수 있는 서식장 조성을 위해서 어촌계와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내가 바로 공재의 후예” 해남군 녹우당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 5월 7일 고산유적지 본대회...4월 20일까지 1차 예선 공모

해남군은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3회 녹우당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1차 예선은 공모로 실시하며, 2차 본선은 예선에서 선발된 인원이 참여해 오는 5월 7일 고산유적지 녹우당 일원에서 진행한다.

1차 공모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대상은 전국의 유치원(6~7세) 및 초등학교이

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해남읍 고산 유선도 유적지는 녹우당 등 중가 고택과 함께 고산유선도유물 전시관이 위치해 있다. 고산 유선도의 증손인 공재 윤두서는 조선후기 삼재화가로 일컬어지며, 조선시대 사실주의 회화의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보 제24호 윤두서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화상으로 꼽히고 있다.

공모 주제는 자신 또는 윤두서 자화상을 그려보는 자화상그리기, 향교나 고택 같은 전통

문화유산 풍경 그리기, 또는 자신이 선정한 주제로 그리는 자유화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산유물전시관 홈페이지와 문화예술과 고산문화팀(☎061-530-55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녹우당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녹우당의 자연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유치면,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회의 개최

## 유치면 3월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통합사례관리 회의 개최



장흥군 유치면행정복지센터(면장 문수연)는 지난 3월 31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민관협력을 통한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위기상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총 2가구를 사례회의의 안전에 상정해 가구별 생활실태와 통합상담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

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마을 이장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이 함께 참석하여 민·관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를 지원하고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치면은 매월 정기적인 통합사례관리 회의로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춘 통합적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군, 금호호 농업용수 공급 사업...물 부족 해결 국비 328억원 투입...금호호↔군내호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추진

진도군이 항구적 가뭄 피해 해결을 위해 ‘금호호↔군내호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진도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난 1일(금) ‘진도-해남 농촌용수 연결사업’ 기공식을 진도대교 인근에서 개최했다.

‘금호호↔군내호 농촌용수 연결사업’은 해남군 문내면과 군내면 녹진리 해저관로 1.1km를 포함 중수관로 16.7km를 연결해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남 금호호의 농업용수를 진도군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항구적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 32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영농에 필요한 관개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진도군은 유래 없는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모내기를 마친 논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벼가 말라 죽는 극심한 피해

가 발생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가뭄 시 상습 농업용수 부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활동으로 농업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영구적인 가뭄 대책으로 영산강 물을 끌어와 진도로 연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박승만 전 진도군수와 2017년 가뭄 피해 당시 김영록 농림부장관(현 전남도지사)의 결단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동진 진도군수, 박규례 진도군의회위원장, 이연춘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농업용수 연결 사업 시작을 환영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 도암문화회관 개관식 개최

## 도암도암카페·당구장·헬스장·공동생활홈 등 주민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

강진군이 지난달 29일 도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암문화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욱 군수, 위성식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차영수 도의원, 최신남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등 내빈과 지역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도암문화회관은 도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2020년 10월부터 약 2년간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총 연면적 1,170㎡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내부는 ▲다목적강당 ▲도암도암 카페 ▲당구장 ▲헬스장 ▲소회의실 ▲공동생활홈 등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행사 개최가 가능토록 구성됐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면소재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테마와 특성을 살려 공원, 주차



장, 마을안길 정비 및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SOC시설을 확충해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고 면 소재지를 농촌발전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승욱 군수는 “도암면민의 열망과 의지로 인해 도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첫 결실을 맺어, 문화회관이 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